

주제 토론

인도네시아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

좌장 : 임형재(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

사회: 임형재(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박경재(인도네시아 국방어학원), 에바 라티파(UI,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장향실(상지대학교), 페트리 메우티아(우나스대학교)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도전과 과제’

주제 강연을 통해 우리는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의 발전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주 노동, 학업, 경제 개발, K-팝 및 K-드라마 이해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수백 개의 한국어 직업 교육 기관이 있으며, 4개의 주요 대학교에서 한국어 및 문화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각 대학의 한국어 학과는 평균 300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에는 많은 이슈와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발전의 역사로 간주된다. 최근 들어 한국어를 통해 강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 기관들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한국어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다. 한국어 교육은 자본주의적 경쟁 흐름 안에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연구와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무한하며,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 1) 교육 제도 및 정책의 문제 - 인도네시아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주로 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어와 같은 다른 외국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제한된 자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2) 교사 부족 및 교육의 질 -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3) 교재 및 학습 자료의 부족 - 한국어 학습을 위한 적절한 교재와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가 현지화

되지 않아서 학습자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지털 학습 자료의 부족도 큰 문제다.

- 4) 학생들의 동기부여 부족 -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아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실질적 사용 기회가 적어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5) 문화적 이해 부족 - 한국어 교육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 6) 행정적 지원 부족 -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는 교육 시설, 재정 지원, 정책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부족한 지원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적절한 교재 개발, 학생 동기 부여 전략, 문화 교육 강화,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학술대회의 주제 토론 구성’

이번 주제 토론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황과 도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기관의 발전, 교육 자료 및 교육자 자원의 부족, 지원 사업의 변화로 인한 영향,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발전 가능성으로 다섯 가지 세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논의하며, 학습자 수요와 기관 수 간의 불균형, 학문적 및 비학문적 목적에 따른 교육 기관의 분류, 그리고 양국 정부 정책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자료 및 교육자 자원의 부족 문제를 다룬다. 특히, 교육자의 수가 학습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현지화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KF 한국(어)학 객원교수 파견 사업의 종료가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전문가 부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통해 한국학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

넷째,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검토한다. 온라인 교육의 증가와 학습 전략 및 기회의 변화를 분석하며, 디지털 학습 도구와 혁신적인 학습 방법의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자격을 갖춘 교수진의 확보와 교육 자료의 번역 및 출판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육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부 주제 1: 인도네시아 한국 언어문화 교육 기관의 발전

토론자: 박경재(인도네시아국방어학원), 에바 라티파(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장항실(상지대학교)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기관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의 수와 학습자 수요 간의 불균형, 학문적 및 비학문적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양국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의 수와 학습자 수요 간의 불균형은 주요 문제로 나타난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학들 중 한국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가자마다 대학교, 나시오날 대학교,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학들은 자바 섬 내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에 접근하기 어렵다.

학문적 목적과 비학문적 목적에 따른 한국어 교육 기관의 분류도 중요한 논점이다. 학문적 목적의 교육 기관으로는 대학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비학문적 목적의 교육 기관으로는 산업, 군사,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의 교육 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인력 송출청(BP2MI)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인도네시아 센터는 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며, 국방어학원과 경찰어학원은 군사 및 정부 분야의 교육을 담당한다. 일반 목적의 교육 기관으로는 세종학당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총 11곳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다.

양국 정부 정책의 영향도 한국어 교육 기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문적 목적의 경우, 대학의 한국학과 개설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는다. 교수의 학위 조건과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과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 한국학 전공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계보다는 한국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목적의 교육 기관, 특히 세종학당의 경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실정법 중에서도 세금 문제가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인기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러한 인기 덕분에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류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학습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특수 목적과 일반 목적의 교육 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어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주제 2: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자료 및 교육자 자원의 부족

토론자: 장향실(상지대학교), 피트리 메우티아/무띠아(우나스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자료 및 교육자 자원의 부족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교육자의 수가 학습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현지화된 교재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자료 및 교육자 자원의 부족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교육자의 수가 학습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현지화된 교재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 한류의 영향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했지만, 자격을 갖춘 교육자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학인 나시오날 대학교와 가자마다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었지만, 자격을 갖춘 교육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

교육 자료의 부족 역시 큰 문제이다. 초기 한국어 교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재인도네시아 동문회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사용된 교재는 주로 한국에서 기증된 한국어 교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들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현지화된 교재 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자원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자의 수급 문제는 경제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많은 졸업생들이 있지만, 대학에서 교육자로 활동하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이 낮아 교수의 급여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는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 학과 개설의 필수 요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같은 기관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자격을 갖춘 강사를 파견하여 지속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더욱 쉽게 개설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현지화된 교재 개발을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자의 경제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인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자료와 교육자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현지화된 교재 개발과 교육자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주제 3: 한국국제교류재단(KF) 객원교수 파견 지원사업의 종료와 그 영향

토론자: 박경재(인도네시아국방어학원), 에바 라티파(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KF 한국(어)학 객원교수 파견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전문가 부재 문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은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대학과 특수 기관에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의를 제공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과가 필요한 분야의 교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KF의 내부 정책 변화로 인해 다른 기관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종료의 영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KF 객원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학 과목을 운영해왔던 대학과 기관들은 필요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급작스럽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대학이나 기관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강의와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인도네시아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자국 내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들을 교수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육자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여러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교수 파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세종학당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필요한 교수 인력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수 인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의 종료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 모색과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주제 4: 팬데믹 이후의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도전

토론자: 장향실(상지대학교), 피트리 메우티아/무띠아(우나스대학교)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네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며, 팬데믹 이후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증가, 학습 전략 및 기회의 변화가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무띠아(우나스대) 교수는 팬데믹 동안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한국어와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 중 하나는 접근성이다. 수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적절한 도입이 필요하다.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CUFS)와 사이버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내 대학에서도 도입하면, 원격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온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교수들은 디지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장향실(상지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기반 학습이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수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학습 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과 같은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방법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수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학습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팬데믹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주제 5: 인도네시아어에서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발전

토론자: 박경재(인도네시아국방어학원), 에바 라티파(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피트리 메우티아/무띠아(우나스대학교)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은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나시오날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는 자격을 갖춘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해 문학 과목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교수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 문학과 문화를 전공한 교수진이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관과 협력하여 문학 전공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부족도 큰 문제이다. 한국 문학 및 문화에 대한 교재나 참고 자료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어렵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이나 문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한국 문학 및 문화 관련 자료의 번역 및 출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교류와 이해 증진 방안도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화 교류는 주로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 기관에서 한국 '탈춤' 동아리를 결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우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현지의 문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교수진의 확보, 교육 자료의 번역 및 출판, 문화적 교류와 이해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기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학술대회의 주제 토론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발전과 도전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학습자 수요와 교육 기관 수의 불균형, 교육 자료와 교육자 자원의 부족, 지원 사업의 변화,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한국 문학 및 문화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각 세부 주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디지털화된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교육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현지화된 교육 자료 개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양국 간의 교육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도 분명하다. 올바른 교육 콘텐츠에 대한 보증과 교육자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 구축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의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자료집의 원고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원고를 수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학술대회 현장에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